

# 5·18은 □다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들에 물어보니

- 

**정용화**  
“인간다움”
- 

**강운태**  
“광주의 세계적 자산”
- 

**장원섭**  
“주먹밥과 피”
- 

**윤난실**  
“피와 주먹밥의 어깨동무”
- 

**정찬용**  
“살아있고 지켜야 할 역사”
- 

**조홍규**  
“독재에 항거한 화산폭발”
- 

**김대식**  
“국민화합의 초석”
- 

**박준영**  
“민주주의의 영원한 불꽃”
- 

**박용두**  
“삶의 지킴”
- 

**김경재**  
“민주혁명의 절정”

## “광주정신 세계정신으로”

###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들 '5·18 공약'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들은 5월 정신 계승과 세계화 등을 내세우며 광주 정신의 계승자임을 강조했다.

광주시장 후보들이 전남지사 후보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는 소통과 포용을 통해 5·18 정신이 사회통합 및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광주를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같은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5·18 정신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운태 후보는 광주를 국제 인권 및 평화공동체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테마로 인권·복지 위원회 설립, 세계평화도시 협의회 결성, 광주 인권·평화센터 건립, 광주 공동체 원탁회의의 개설, UN 인권도시 추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장원섭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구 전남도청의 원형 보전만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광주학생운동 등 민족민주항쟁 사적지를 광주·전남의 역사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관광 및 교육코스를 개발, 광주를 역사, 문화, 교육의 장으로 일구어 5·18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당 정찬용 후보는 5·18 30년사 정리와 5·18 연구소 설립, 5·18 기념행사의 광주 대표 문화 브랜드 육성, 5·18 자료 상시 수집 체계 구축, 5·18 관련 조직의 상향 조정, 5·18 피해자 전수 조사 등을 약속했다.

평화민주당 조홍규 후보는 아시아 문화전당에 5·18 진실과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전국 교육기관에 5·18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전남지사 후보들의 5·18 공약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한나라당 김대식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공약을 아예 제시하지도 못한 상태다.

민주당 박준영 후보는 지난 2004년 취임 이후 5·18 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한 뒤,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5·18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용두 후보는 5·18 사적지 및 도청원형 보존과 5·18 행사 지원 확대, 5·18 관련 자료 발간,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평화민주당 김경재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고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해 보다 확충된 보훈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18 광주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북구 온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 한나라당 정용화·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 강기정·정동영 국회의원(앞줄 왼쪽부터)이 참석해 5월 영령들의 명복을 빌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이희호 여사, 5·18묘지 盧전대통령 묘지 잇단 참배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인 이희호 여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와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잇따라 참배한다.

이 여사는 18일 오후 3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다음날 오전 10시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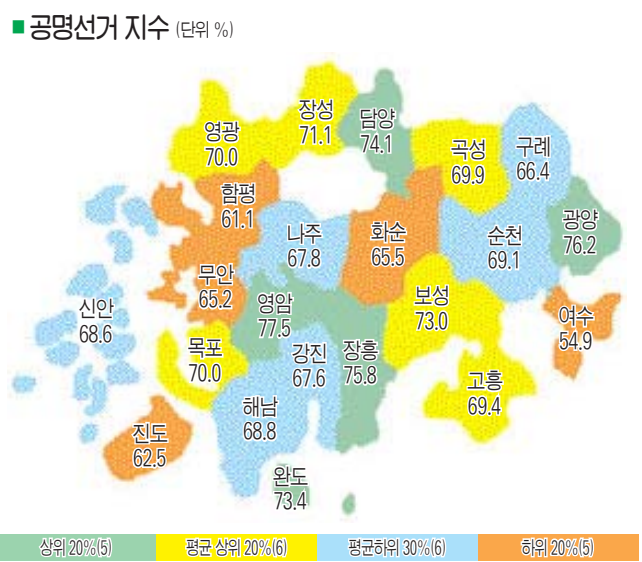
에서 열리는 '2010 광주 아시아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광주 아시아포럼'은 5·18 기념재단이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평화를 주제로 매년 주최하는 국제포럼 행사로, 해외 참가자 150여 명을 비롯해 국내·외 시민활동가 50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여사는 오는 20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나 위로한 뒤 상경할 계획이다. 이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은 작년 10월 참배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이 여사의 광주 방문에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최경환 공보실장 등이 수행한다. /최권일기자 cki@

### 전남선관위 측정 22개시·군 공명선거지수



## 단체장 무투표 영암 1위 후보자 난립 여수시 꼴찌

### 100점 만점에 평균 69점

전남 도내 시·군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명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암군이며, 가장 낮은 곳은 여수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주체인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직능·시민단체에 대한 선거의 공명성 수준을 1차 측정 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69.0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 선관위가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선거의 공명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공명선거 지수'(FEI: Fair Election Index)를 개발해 적용한 것이다. 공명선거 지수 측정결과 종합지수 77.5점을 받은 영암군이 최고를 기록했으며, 상위 20% 5개 지역은 ▲광양시(76.2) ▲장흥군(75.8) ▲담양군(74.1) ▲완도군(73.4) 등이었다.

반면 여수시가 54.9점을 받아 22개 시·군 중 최저를 기록했으며, ▲함평군(61.1) ▲진도군(62.5) ▲무안군(65.2) ▲화순군(65.4) 등이 최하위 5개 지역으로 분류됐다.

영암이 최고를 기록한 것은 군수 선거의 경우 단일후보로 무투표 당선인 된데다 광역의원 경우도 무투표 당선 지역이어서 선거가 과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수시의 경우 시장 선거에서부터 광역·기초의원에 이

르기까지 후보들이 난립해 과열 분위기 양상을 띠면서 선거법위반 적발 사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단위지수별로는 ▲준법선거지수 58.30점(66.33점 만점) ▲정책선거지수 3.66점(16.83점 만점) ▲참여선거지수 7.02점(16.83점 만점)을 기록해 준법선거 준수 정도는 진전됐으나 정책선거 실현 및 선거참여 활동 정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준법선거지수에서도 영암군이 가장 높은 64.73점을 받았고, 정책선거지수 부문에서는 강진군이 6.08점을 얻어 가장 정책 선거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선거지수 부문에서는 고흥군이 8.43을 얻어 최고 점을 기록했다.

전남선관위는 7월 중 전 선거과정의 각종 통계치와 의사조사를 통해 최종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

▲공명선거지수(FEI: Fair Election Index) = 행태지수와 인지지수로 구성되며 준법선거지수(선거법 준수 여부), 정책선거지수(메니페스토 활동 수준), 참여선거지수(선거참여 정도) 등 세 가지 항목에 가중치를 차등 또는 균등 반영해 행태지수 90점과 인지지수 10점 만점을 합산해 종합지수 값을 측정한다. 각 지역별 인구 수와 후보자 수도 감안해서 산출된 점수다.

#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2010년 5월 18일 화요일

www.kci.or.kr

1388-8499-1111-1111

437회 5월 18일 화요일

www.kci.or.kr

1388-8499-1111-1111

1388-8499-1111-1111

www.kci.or.kr